

대구 · 경북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점 이용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Taegu · Kyungbuk -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부 교수 유 두 련

조 교수 박 금 순

석사과정 김 수 영

경북과학대학 외식산업과

겸임교수 김 향 희

대구산업정보대학 조리과

겸임교수 이 선 주

Dept.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Associate Prof. : You, Doo Ryon

Assistant Prof. : Park, Geum Soon

Master course : Kim, Soo Young

Dept. of Hotel Food Service, Kyungbuk College of Science

Lecturer : Kim, Hyang Hee

Dept. of Food Preparation, Taegupolytechnic College

Lecturer : Lee, Sun Ju

◀ 목 차 ▶

I. 서 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고찰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ast food chain stores according to their parents' social demographic factors in using fast food chain stores.

The data of this research were composed of 599 college students in Taegu · Kyungbuk region.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X^2 -test,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ith SPSS PC+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cademic background and father's occupations, family income level of the respon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using fast food chain stores. Secondly, 1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rdly' used fast food chain stores, 65.4% of them 'sometimes', and 16% of them 'frequently'.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visit 'with their friends'. They prefer fast food because the food is convenient to eat and the services are fast. The frequency of eating out was increased and their taste was apt to westernize.

I. 서론

식생활 양식은 경제·사회적 구조, 소득수준, 산업기술, 식습관 그리고 식량정책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생성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와 함께 개인소득 수준이 증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독신자 가족 등 가족제도의 변화와 서구사회의 문화유입에 의하여 소비의식 및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주부의 시간가치 상승 등은 외식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류은순 외, 1989).

패스트푸드(fast food)란 외식산업의 한 부분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먹기에 간편하고 고객이 주문하면 신속하게 음식이 제공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된 음식이다. 특히 서구문화의 영향이 식생활영역에 침투되면서 서구형 패스트푸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점포는 음식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ing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안창근, 1985). 이 시스템의 특징은 가맹점(franchisee)을 모집하여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본부(franchiser)가 가지고 있는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고, 표준시설을 설비해 주는 체인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는데 있다(안창근, 1985).

이러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패스트푸드점은 사업의 특성화 전략으로 음식의 질(quality), 청결한 점포(cleanliness),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service) 등을 강조하고 같은 체인점이면 어디서나 똑같은 맛과 서비스, 쾌적한 점포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먹기 간편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이용속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월간식당, 1986; 박동경, 1994).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1973년 서울시가 햄버거를 실비로 보급하는 간이식당을 개설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79년 롯데리아가 개점되면서 서구형 패스트푸드점이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으며, 그 후 외국 유명상표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햄버거 외에 피자,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 산업이 자리를 잡아갔다(류은순, 1989; 박동경, 1994). 또한 면류, 김밥류, 도너츠,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게 되어 선택의 폭과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모수미 외, 1989; 월간식당, 1986).

패스트푸드 이용자의 대부분은 젊은 연령층(심경희 외, 1993; 전미연 외, 1990)으로서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용자의 85%가 14세~30세 연령에 속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실태에 관한 한명주(1992)와 김혜경(1996)의 연구에서도 이들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모수미 등(1989)과 정영진(1989)의 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는 대학생들의 식습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구형 패스트푸드에 관한 영양적 균형평가분석에 의하면(김초영 외, 1990; 심경희 외, 1993; 정영진, 1984; 제갈성아 외, 1994; 최은진, 1992)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영양적인 면보다는 간편성, 경제성, 미각 등에 비중을 두고 개발하고 있으므로 자주 섭취하게 될 경우 영양소섭취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패스트푸드 이용자들의 영양적 불균형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난숙 외, 1994; 김준영 외, 1990).

더구나 식습관이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생활양식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정영진, 1984) 현재 젊은 세대들의 올바른 식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Bock 등(1998)과 Peterson 등(1994)의 최근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음식섭취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떤 특정음식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호여부는 식생활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식습관은 다양하게 나타나며(김정현 외, 1992; 이철호 외, 1998), 패스트푸드의 섭취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있음을 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의 주이용자들인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스트푸드 이용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교육용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 동행인, 선호이유 그리고 식습관 변화 등의 이용실태에 관한 전반적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이용실태는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II. 문헌고찰

1.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의 발전 추이

국내 외식산업 중에서 패스트푸드산업은 1979년 롯데리아 개점 이후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급성장 하였다. 90년대 이후 패스트푸드 시장점유율은 1990년에 비하여 1991년에는 160%, 92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5%의 신장률을 보여주었다(한국식품연감, 1993).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이러한 추세는 대단히 둔화되고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햄버거체인점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롯데리아와 맥도날드의 경우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점포증가률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1999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식품연감, 1998). 그러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 업체중 업체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햄버거 업체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피자, 치킨의 순으로 나타나며, 구성비의 변화는 햄버거 업체가 감소하는 반면 피자 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곽동경, 1994; 한국식품연감, 1998).

2. 선행연구의 고찰

지금까지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살펴

<표 1>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현황 - 햄버거체인점의 예

(97. 12. 31 현재)

순위	브랜드명	매출액(억원)			매출증가율(%)		점포수			점포증가율(%)	
		1996	1997	1998	97 vs 96	98 vs 97	1996	1997	1998	97 vs 96	98 vs 97
1	롯데리아	2,300	2,400	2,600	4.3	8.3	317	382	412	20.5	7.9
2	맥도날드	700	930	1,400	32.9	50.5	76	115	160	51.3	39.1
3	버거킹	329	416	600	26.4	44.2	40	49	62	22.5	26.5
4	웬디스	250	234	250	-6.4	6.8	32	24	28	-25	16.7
5	하디스	170	174	190	2.4	9.2	20	24	28	20	16.7

* 하디스는 '98년 매출, 점포수는 가맹점 배제한 직영점만의 수치임, '98년도는 추정치임.

보면 연구대상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용으로는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에 관하여 남·녀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중심으로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두진, 1994; 김혜경, 1996; 전미연 외, 1990; 최은진, 1992; 김현준, 1994).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환경변인에 따른 이용실태의 차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김기남(1982)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도 또는 가족의 영향이 개인의 식습관과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류은순 등(1991)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실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와 방문동기, 패스트푸드의 선호이유,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 식습관의 변화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패스트푸드점 방문 및 음식에 대한 만족도와 패스트푸드점의 서비스, 청결, 그리고 가격, 음식의 맛, 영양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최은진, 1992; 김현준, 1994). 또한 패스트푸드의 지방과 단백질 함량 등의 영양적 균형평가에 관한(심경희 외, 1993; 정영진, 1984; 김초영 외, 1990; 제갈성아 외, 1994; 김난숙 외, 1994) 연구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성별 외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포함시켜 이들 변인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의 차이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6개 종합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의 남·녀 학생수에 비례하여 총 6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599부를 분석자료로 이용

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9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가정환경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아버지·어머니의 직업과 가계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2)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의 종류와 선호이유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추이, 방문때의 동행인은 누구인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용빈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동행인에 대하여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는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패스트푸드의 선호이유에 대하여서는 빨리 나오기 때문, 영양이 풍부하므로, 맛이 양호하므로, 위생적이므로, 먹기 간편하므로,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므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이래 본인이 느끼는 식습관 변화에 대하여서는 변화의 유무, 그리고 변화가 있을 때는 외식 증가, 입맛의 서구화, 체중 또는 지방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는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으며 선호이유에 대한 신뢰도는 .69, 식습관 변화에 대한 신뢰도는 .67이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조사자들이 직접 조사대상자에게 배부하여 기입한 후 수거하였다. 조사자들은 본교 생활환경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게 조사내용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Win 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용실태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X^2 -test,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6세 이상~50세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3.2%),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관련 종사자(19.7%)와 제조업자(18.5%)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과반수는 취업주부(59.3%)였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약 43.7%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인 가계도 약 13.5%를 차지하였다.

2.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실태에 관한 전반적 수준

패스트푸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표 3>에서와 같이 햄버거가 전체 응답자의 69.4%로 가장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9)

구 분	N(%)	
	여자	남자
성 별	280(46.7)	316(52.8)
어머니 연 령	45세 이하	98(16.4)
	46세 이상~50세 이하	259(43.2)
	51세 이상~53세 이하	93(15.5)
	54세 이상	86(14.4)
어머니 학 령	중졸 이하	184(30.7)
	고졸	276(46.1)
	전문대졸 이상	101(16.9)
어머니 직 업	취업주부	355(59.3)
	비취업주부	204(34.1)
아버지 직 업	전문기술직	72(12.0)
	행정관리직	43(7.2)
	사 무 직	118(19.7)
	제조업자	111(18.5)
	서비스업종사	60(10.0)
	생산직 및 기타	148(24.2)
월평균 소 득	100만원 미만	63(10.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2(43.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4(25.7)
	300만원 이상	81(13.5)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피자, 치킨의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혜경(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햄버거가 48%, 치킨 17.3%, 피자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명주(1992)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실태에 관한 내용과 각각 변인에 대한 전반적 수준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응답자 중 '거의 가지 않는다'의 부정적 응답자는 전체의 약 19%이며, '매우 자

<표 3> 선호음식

변 인	선 호 음 식						계
	햄버거류	피자류	음료류	치킨류	튀김류	기 타	
남	185(77.1)	23(9.6)	3(1.3)	17(7.1)	2(0.8)	10(4.2)	241(50.1)
여	149(61.8)	45(18.7)	6(2.5)	29(12.0)	4(1.7)	8(3.3)	240(49.9)
전체N(%)	336(69.4)	69(11.5)	9(1.9)	46(7.7)	6(1.2)	18(3.0)	599(100.0)

〈표 4〉 이용실태의 전반적 수준

변인	이용빈도				동행인						
	거의가지 않는다	때때로 (한달 1~2회)	매우 자주 (주2회 이상)	계	친구	연인	가족 및 기타	계			
N(%)	112(18.7)	392(65.4)	93(15.6)	471(83.2)	60(10.0)	35(6.2)	599(100.0)	599(100.0)			
변인	식습관 변화				선호이유						
	거의없음	외식증가	입맛 서구화	체중증가	지방섭취 증가	신속함	풍부한 영양	양호한 맛	위생적	먹기 간편함	저렴한 가격
M*	3.2	2.5	2.6	2.7	2.9	3.4	2.2	3.1	2.6	3.7	2.5

*5점 만점

주' 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16%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때때로' (65.4%)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송순영(1998)의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때때로' 나 '매우 자주' 이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63%와 11%로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순영, 1998). 또한 김혜경(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주2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약 16%로 나타났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할 때는 '친구와 함께 간다' (83.2%)는 응답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먹기 간편하므로'가 평균 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신속함' (M=3.4)과 '맛이 양호하기 때문' (M=3.1)이라는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심경희 등(199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맛'을 제1의 선호이유로 그 다음이 '간편하므로' 이었고, 김혜경(1996)의 연구에서는 '간편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패스트푸드 섭취에 따라 식습관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거의 없다'가 평균 3.2, '지방섭취 증가'가 평균 2.9의 순이었다. 그러나 김혜경(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입맛이 서구화되었다'에 대한 응답률이 51.3%로 가장 높았다.

3. 패스트푸드점 이용실태의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남·녀

대학생의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변인은 다음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이용실태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 동행인, 패스트푸드의 선호이유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식습관의 변화 등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에 의하면 이용빈도(p<.001)와 동행인(p<.001)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용빈도 전체를 고려할 때 '때때로' 방문한다가 전체의 65.5%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자주 방문'한다고 한 응답자는 약 16%이었다. 반면에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도 19%정도 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가끔' 방문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62.3%), 그 다음은 '거의 가지 않는다' (25.7%)의 순이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때때로' 방문한다 (69.0%), '매우 자주' (19.9%)의 순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이용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류은순 등(1989)의 연구와 같았고, 또한 김혜경(1996)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이용빈도가 높았다.

동행인의 경우 남·여학생 모두가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연인과 함께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표 5〉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 및 동행인

이용빈도	남	여	전 체	
	N(%)	N(%)	N(%)	
거의 가지 않는다	81(25.7)	31(11.0)	112(18.9)	$\chi^2=24.553^{***}$ df=2
때때로(한달 1~2회)	195(62.3)	194(69.0)	389(65.5)	
매우 자주(주2회 이상)	37(11.8)	56(19.9)	93(15.7)	
전 체	313(52.7)	281(47.3)	594(100.0)	
동 행 인	N(%)	N(%)	N(%)	
친구	227(76.7)	241(90.3)	468(83.1)	$\chi^2=18.803^{***}$ df=2
연인	45(15.2)	15(5.6)	60(10.7)	
가족 및 기타	24(8.1)	11(4.1)	35(6.2)	
전 체	296(52.6)	267(47.4)	563(100.0)	

***p<.001

〈표 6〉 성별에 따른 Fast Food점의 선호이유 및 식습관변화

선호이유	남	여	t-값	식습관 변화	남	여	t-값
	M	M			M	M	
신속함	3.30	3.47	2.158*	거의 없음	3.26	3.09	-1.827
풍부한 영양	2.09	2.36	3.900***	외식 증가	2.27	2.67	5.098***
양호한 맛	2.93	3.36	5.599***	입맛 서구화	2.47	2.81	3.763***
위생적	2.56	2.67	1.574	체중 증가	2.39	3.07	7.533***
먹기 간편함	3.67	3.82	1.990	지방섭취 증가	2.59	3.20	6.936***
저렴한 가격	2.36	2.68	3.541***				

*p<.05 ***p<.001

M: 5점 만점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의 선호이유와 본인의 식습관 변화여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패스트푸드의 선호이유 중 신속함, 풍부한 영양, 양호한 맛 또는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는 남녀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가장 큰 차이는 '맛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여학생의 평균(M=3.36)이 남학생(M=2.93)에 비하여 더 높았으며 이는 여학생이 패스트푸드의 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겠다.

식습관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거의 없음'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도 '지방섭취의 증가'는 여학생의 경우 평균 3.20으로 대단히 높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지방섭취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입맛이 서구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심경희 등(1993)과 류은순 등(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2.77, 여학생 평균이 3.22로 나타나서 본 연구 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하겠다. 이는 '80년대와 '90년대 대학생들의 '입맛 서구화'에 대한 인지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2)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실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자의 패스트푸드 이용 빈도 및 동행인, 그리고 선호이유와 식습관 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패스트푸드의

이용빈도 및 동행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 선호이유와 식습관변화에만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선호이유는 '위생적' 이유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어머니의 연령층 집단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패스트푸드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선호하였다.

또한 식습관변화에 있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패스트푸드 섭취후 변화를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식습관변화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의 어머니일수록 더 서구식 패스트푸드 섭취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이용실태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X^2 -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에 의하면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스트푸드

의 이용빈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중졸 이하의 경우 '때때로' 방문한다(67.9%)가 가장 높았으며 '거의 가지 않는다'가 23.9%이었다. 고졸의 경우에는 '때때로'가 66.2%, '매우 자주'가 17.5%로 높았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빈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행인에 있어서는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중졸 이하의 경우에 '친구'와 함께 가는 경우가 8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인'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9.2%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졸에서도 같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19.4%가 '연인'과 함께가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동행인으로 '연인'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점차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9>에서는 어머니 학력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 중 외식 증가($p<.01$), 체중 및 지방섭취의 증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선호이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외식이 증가하였고 체

<표 7> 어머니 연령에 따른 Fast Food점 선호이유 및 식습관변화

선호이유	45세 이하	46~50세	51~53세	54세 이상	F값
	M(D)	M(D)	M(D)	M(D)	
신속함	3.41	3.36	3.46	3.44	.344
풍부한 영양	2.18	3.25	2.21	2.31	.478
양호한 맛	3.06	3.22	3.23	3.15	.792
위생적	2.49(a)	2.61(ab)	2.68(ab)	2.85(b)	2.622*
먹기 간편함	3.73	3.74	3.81	3.89	.800
저렴한 가격	2.50	2.46	2.52	2.76	1.757
식습관 변화	M(D)	M(D)	M(D)	M(D)	F값
거의 없음	3.06(a)	3.08(a)	3.29(ab)	3.44(b)	2.955*
외식증가	2.52	2.51	2.34	2.49	.791
입맛서구화	2.84	2.64	2.61	2.62	1.071
체중증가	2.58	2.77	2.74	2.81	.815
지방섭취증가	2.67	2.96	2.82	3.08	2.552

* $p<.05$

M: 5점 만점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8〉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및 동행인

이용빈도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이상	전 체	
	N(%)	N(%)	N(%)	N(%)	
거의 가지 않는다	44(23.9)	45(16.4)	12(12.0)	101(18.1)	$\chi^2 = 18.888^{***}$ df=4
때때로 (한달 1~2회)	125(67.9)	182(66.2)	63(63.0)	370(66.2)	
매우 자주 (주2회 이상)	15(8.2)	48(17.5)	25(25.0)	88(15.7)	
전 체	184(32.9)	275(49.2)	100(17.5)	559(100.0)	
동행인	N(%)	N(%)	N(%)	N(%)	
친 구	150(86.2)	226(85.6)	70(75.3)	446(84.0)	$\chi^2 = 11.577^*$ df=4
연 인	16(9.2)	20(7.6)	18(19.4)	54(10.2)	
가족 및 기타	8(4.6)	18(6.8)	5(5.4)	31(5.8)	
전 체	174(32.8)	264(49.7)	93(17.5)	531(100.0)	

*p<.05 ***p<.001

〈표 9〉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 후 식습관변화

식습관변화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이상	F 값
	M(D)	M(D)	M(D)	
거의 없음	3.25	3.20	3.14	.367
외식증가	2.27(a)	2.56(b)	2.58(b)	5.754**
입맛서구화	2.57	2.71	2.69	.948
체중증가	2.47(a)	2.83(b)	2.93(b)	7.723***
지방섭취증가	2.60(a)	3.01(b)	3.13(b)	10.964***

p<.01 *p<.001

M: 5점 만점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 및 지방섭취가 증가하고 있었다.

4)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이용실태

아버지 직업에 따른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X^2 -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이용빈도를 비교해 볼 때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직업별 이용빈도 분석 결과 모든 직업에서 '때때로' 방문한다가 가장 높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조사 결과 전문기술직

〈표 10〉 아버지 직업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및 동행인

이용빈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제조업자	서비스업	생산직 및 기타	전 체	
	N(%)	N(%)	N(%)	N(%)	N(%)	N(%)	N(%)	
거의 가지 않는다	9(12.5)	5(11.6)	21(17.8)	12(10.8)	10(16.7)	42(28.4)	99(17.9)	$\chi^2 = 33.450^{***}$ df=10
때때로 (한달1~2회)	44(61.1)	24(55.8)	81(68.6)	81(73.0)	42(70.0)	92(62.2)	364(66.0)	
매우 자주 (주2회 이상)	19(26.4)	14(32.6)	16(13.6)	18(16.2)	8(13.3)	14(9.5)	89(16.1)	
전 체	72(13.0)	43(7.8)	118(21.4)	111(20.1)	60(10.9)	148(26.8)	552(100.0)	
동행인	N(%)	N(%)	N(%)	N(%)	N(%)	N(%)	N(%)	
친 구	53(77.9)	28(70.0)	101(91.0)	88(85.4)	47(82.5)	125(86.2)	442(84.4)	$\chi^2 = 17.849^*$ df=10
연 인	12(17.6)	8(20.0)	6(5.4)	12(11.7)	7(12.3)	10(6.9)	55(10.5)	
가족 및 기타	3(4.4)	4(10.0)	4(3.6)	3(2.9)	3(5.3)	10(6.9)	27(5.2)	
전 체	68(13.0)	40(7.6)	111(21.2)	103(19.7)	57(10.9)	145(27.7)	524(100.0)	

*p<.05 ***p<.001

〈표 11〉 아버지 직업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 후 식습관변화

식습관변화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제조업자	서비스업	생산직 및 기타	F 값
	M(D)	M(D)	M(D)	M(D)	M(D)	M(D)	
거의 없음	3.12	3.05	3.19	3.09	3.17	3.30	.656
외식증가	2.63	2.49	2.60	2.48	2.51	2.32	1.466
입맛서구화	2.74	2.73	2.77	2.78	2.56	2.46	1.717
체중증가	3.03	2.90	2.80	2.77	2.59	2.55	2.175
지방섭취증가	3.26(c)	3.17(bc)	2.86(ab)	2.95(abc)	2.80(ab)	2.72(a)	3.060**

**p<.01

M: 5점 만점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경우에 '매우 자주' 방문한다가 26.4%, 행정관리직의 경우에는 '매우 자주' 방문한다가 32.6%로 높은 반면 생산직 및 기타 경우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가 28.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직업이 행정관리직 또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동행인에 따라서도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표 10〉에 의하면 친구와 함께 방문한다는 경우가 모든 직업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연인'과 함께이었으며 전문기술직의 경우에 17.6%, 행정관리직은 20%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12.3%로 사무직, 생산직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다.

또한 〈표 11〉은 아버지 직업에 따른 식습관변화의 차이분석 결과이며 '지방섭취증가'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1). 집단간 유의성을 살펴보면 전문기술직의 경우에 지방섭취증가가 가장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행정관리직이었다. 반면에 생산직의 경우 지방섭취증가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아 전문직일수록 지방섭취증가가 더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직업에 따른 선호이유는 유의성이 전혀 없었다.

5)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실태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X^2 test,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빈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각각의 소득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때때로' 방문한다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소득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의 집단에서는 '거의 가지 않는다'가 각각 34.9%, 19.5%로 높았으며, 200~300만원과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매우 자주'가 그 다음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월평균소득 집단에서는 '매우 자주' 방문하는 집단의 응답률이 32.1%로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 자녀들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이용빈도가 더 높은 것이라고 하겠다. 류은순 등(198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행인에 있어서도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친구 다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연인이었고, 특히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29.9%). 반면에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연인과 함께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100~200만원과 200~300만원 집단의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명주(1992)의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점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선호이유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신속함(p<.05), 풍부한 영양(p<.05), 맛이 양호하거나(p<.01) 그리고 가격이 저렴(p<.001)하기 때문의 이유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2〉 월평균소득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및 동행인

이용빈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N(%)	N(%)	N(%)	N(%)	N(%)	
거의 가지 않는다	22(34.9)	51(19.5)	22(14.3)	9(11.1)	104(18.6)	$\chi^2=37.205^{***}$ df=6
때때로 (한달 1~2회)	40(63.5)	176(67.2)	105(68.2)	46(56.8)	367(65.5)	
매우 자주 (주2회 이상)	1(1.6)	35(13.4)	27(17.5)	26(32.1)	89(15.9)	
전 체	63(11.3)	262(46.8)	154(27.5)	81(14.5)	560(100.0)	
동 행 인	N(%)	N(%)	N(%)	N(%)	N(%)	
친 구	42(68.9)	223(90.3)	126(87.5)	48(62.3)	439(83.0)	$\chi^2=53.066^{***}$ df=6
연 인	10(16.4)	15(6.1)	9(6.3)	23(29.9)	57(10.8)	
가족 및 기타	9(14.8)	9(3.6)	9(7.8)	6(7.8)	33(6.2)	
전 체	61(11.5)	247(46.7)	77(14.6)	77(14.6)	529(100.0)	

***p<.001

〈표 13〉 월평균소득에 따른 패스트푸드점의 선호이유 및 식습관변화

선호이유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F값
	N(%)	N(%)	N(%)	N(%)	
신속함	3.05(a)	3.46(b)	3.41(b)	3.30(ab)	3.200*
풍부한 영양	1.98(a)	2.22(ab)	2.36(b)	2.19(ab)	3.120*
양호한 맛	2.73(a)	3.15(a)	3.30(b)	3.14(b)	5.246**
위생적	2.40	2.61	2.75	2.59	2.311
먹기 간편함	3.66	3.76	3.82	3.65	.926
저렴한 가격	2.42(a)	2.43(a)	2.79(b)	2.28(a)	5.658***
식습관변화	M(D)	M(D)	M(D)	M(D)	F값
거의 없음	3.38	3.21	3.12	3.00	1.547
외식증가	2.16(a)	2.37(ab)	2.70(b)	2.53(ab)	5.865***
입맛서구화	2.29(a)	2.59(ab)	2.87(b)	2.65(ab)	4.568**
체중증가	2.48(a)	2.54(a)	3.00(b)	2.85(ab)	6.587***
지방섭취증가	2.59(a)	2.75(a)	3.17(b)	2.96(ab)	6.638***

*p<.05 **p<.01 ***p<.001

M: 5점 만점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신속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는 100~200만원의 소득집단에서,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은 200~300만원의 집단에서 가장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맛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는 200~300만원과 300만원 이상 집단의 평균이 높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는 200~300만원 소득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에서는 오히려 평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선호이유 중에서 위생적이거나 먹기 간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유의성이 없었다.

식습관변화에 있어서는 외식증가(p<.001), 입맛 서구화(p<.01), 체중증가(p<.001), 그리고 지방섭취증가(p<.001)에 있어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에 있어서 200~300만원 소득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이 높았다.

V. 요약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패스트푸드 체인점 이용실태에 관한 전반적 수준과 성별, 아버지·어머니의 직업, 어머니 연령 및 학력, 그리고 월평균가계소득 등의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이용실태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주로 선호하는 음식은 햄버거류(69.4%)가 가장 많았으며, 피자류(11.5%), 치킨류(7.7%)의 순이었다.
2.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이용빈도는 '때때로(65.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의 가지 않는다'(18.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친구'와 함께 방문(83.2%)하며, '먹기 간편'하기 때문에(M=3.7)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며,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이후 식습관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M=3.2), 지방섭취 또는 체중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각각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빈도, 동행인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의 이용빈도가 남학생들 보다 더 높았으며, 더 많은 여학생의 경우에 '친구'와 방문하였다. 선호이유 중에서 '맛이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맛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 연령에 따른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생적'이기 때문이라는 선호이유와 식습관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경우에 있어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이용실태의 분석에서 이용빈도와 동행인 그리고 '외식의 증가', '체중의 증가' 또는 '지방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에 있어서만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빈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동행인이 친구 뿐만 아니라 연인에 있어서도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외식이 증가하고, 체중과 지방섭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아버지 직업에 따른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빈도는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동행인에 있어서도 친구 뿐만 아니라 연인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직일수록 지방섭취의 증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7.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실태 분석에서도 이용빈도와 동행인에 있어서는 아버지 직업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중간이하 집단에서 '신속하기 때문'에 선호하였으며, '맛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이 풍부하거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중간소득 이상의 집단에서 많이 나타났다. 식습관의 변화에 있어서도 월평균소득이 중간이상(200~300만원)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는 응답자의 성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중간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의 이용빈도는 현저히 높았으며, 식습관에도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패스트푸드 이용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할 때 주로 친구와 함께 방문하고 있었으며 이는 패스트푸드점의

이용은 가족 뿐만 아니라 친구 등의 또래집단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고 바람직한 식습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은 또래집단이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 또는 기타의 비정규교육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서는 본인의 용돈수준, 성격, 비만도 등의 개인적 특성과 동아리 활동과 같은 또래집단에 관한 변인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변인들이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광동경(1994). 패스트푸드 업체의 급식경영실태 및 발전방향, 한국식문화학회지, 9(2): 190~207.
- 2) 광동경, 류은순, 남순란, 이해상, 김성희, 문혜경, 주세영(1991). Fast Foods의 영향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의식구조 조사와 영양적 균형에 관한 연구1), 한국조리과학회지 7(3): 37~46.
- 3) 김기남(1982). 식습관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5(3): 194~201.
- 4) 김난숙·김성애(1994). 시판 패스트푸드의 지질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0(2): 131~137.
- 5) 김두진·이성호(1994). 외식산업에서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의식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1): 36~44.
- 6) 김정현, 이민준, 양일선, 문수재(1992).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7(1): 1~8.
- 7) 김초영, 남순란, 광동경(1990). Fast Foods의 이용 실태조사 및 영양적 균형 평가를 위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5: 361~369.
- 8) 김현준(1994). 패스트푸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혜경(1996). 울산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1(1): 131~141.
- 10) 류은순·광동경(1989).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조사: 제1보 햄버거 체인점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3): 229~236.
- 11) 모수미·전미연·백수경·이수경(1989).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2차실태조사-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1): 83~94.
- 12) 박승애(1997). 패밀리레스토랑의 한식메뉴 이용실태 및 이용고객의 만족도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1): 23~33.
- 13) 송순영(1998). 신세대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8-05.
- 14) 심경희·김성애(1993). 도시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의 이용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6): 804~811.
- 15) 안창근(1985). 국내 외식산업의 현황과 전망, 식품공업, 82: 17~22.
- 16) 월간식당(1986). 국내 패스트푸드 현황과 실태, 월간식당, 7.
- 17) 이철호·주용재·안기욱·류시생(1988).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4): 397~406.
- 18) 전미연·김복임·이경신·모수미(1990). 패스트푸드식당 이용자의 식사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15~28.
- 19) 정영진(1984). 대학생의 음식기호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7: 10~19.
- 20) 제갈성아·김성애(1994). 시판 패스트푸드중 단백질 함량 및 필수아미노산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0(2): 126~130.
- 21) 최은진(1992).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이용실태 및 패스트푸드에 대한 만족 조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한명주(1992).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91~96.

- 23) 한국식품연감(1996). 서울:농수축산신문.
- 24) _____(1998). 서울:농수축산신문.
- 25) Margaret Ann Bock, Marsha Read, Christine Bruhn, Garry Auld, Kathe Gabel, Georgia Lauritzen, Y. Lee, Judiann McNulty, Denis Medeiros, Rosemary Newman, Susan Nitzke, Melchor Ortiz, Howard Schutz and Edward Sheehan(1998).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in factors that influence food intak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22(1), March: 25~37.
- 26) Peterson, S., Kris-Etherton, P.M. & Sigman-Grant, M.(1994). Perceived barriers to family implementation of a low fat diet. Journal of Home Economics, 86(2): 5~12.